

폭염대비 온열질환 발생 감시 시작!

- 최근 3년간(2023~2025년) 지속적인 온열질환자 발생 증가 추세
 - * ('23년) 2,818명, ('24년) 3,704명, ('25년) 4,460명으로 연평균 44% 증가
 - 5월 15일(금)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발생 감시 시작
 - 여름철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 당부
- 【관련 국정과제】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현황의 신속한 정보공유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5월 15일(금)부터 9월 30일(수)까지 운영한다.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시·도가 참여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일일 발생 정보를 제공한다.

* 질병관리청 정책정보(<http://www.kdca.go.kr>) 건강 위해 예방·관리 > 기후변화 > 온열질환 > 신고현황



온열질환 응급실감시 신고·보고 체계

지난해(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확인된 온열질환자 수는 감시체계 운영 이후(2011년~) 역대 두번째로 많은 4,460명이다. 이 중 29명은 온열질환에 의한 추정사망자이며, 이는 전년(2024년) 34명 대비 17.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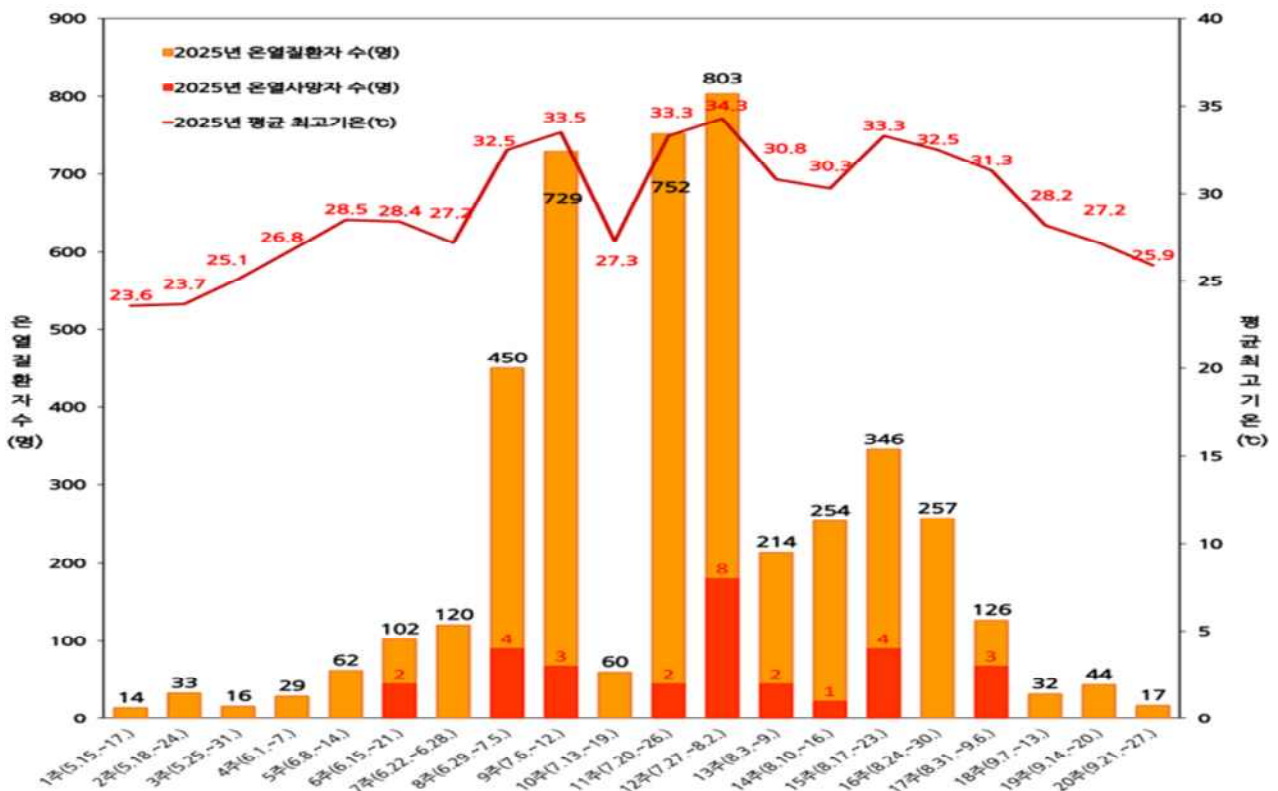
※ 역대 최장 폭염일 수(31일)를 기록한 2018년에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4,526명) 발생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특성으로는 남성(79.7%)이 대부분으로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19.4%), 65세 이상 노년층도 전체 환자의 30%를 차지하였다. 온열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767명(62.0%)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 978명, 경북 436명, 경남 382명, 전남 381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대부분(79.2%)이고, 구체적으로는 실외 작업장 1,431명(32.1%), 논밭 542명(12.2%), 길가 522명(11.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 1,160명(26.0%), 무직 589명(13.2%), 농림어업종사자 348명(7.8%) 순이며, 발생시간은 오후 시간대(14~17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17시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시간대별 기온 분포와 연관성을 보였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남성이 23명, 여성은 6명이며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58.6%로 나타났다. 사망 원인은 주로 열사병(93.1%)이며 실외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79.3%)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발생주별 온열질환 발생 분포와 평균 최고기온

기상청에 따르면, 5~6월은 평년 평균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60%를 보임에 따라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 (평년 평균기온) 5월 : 17.0~17.6℃, 6월 : 21.1~21.7℃, 7월 : 24.0~25.2℃

온열질환자가 폭증하는 시기는 7~8월로 전체 온열질환자 중 85%(3,792명)가 이 시기에 발생하였으며, 폭염 발생 기간과 일치한다.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여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치매, 정신질환 등)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를 밀폐된 집안, 자동차 등 기온이 높은 장소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은 단기간에도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지방정부·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폭염 건강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 ①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②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 ③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 ④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 <붙임> 1.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2. 건강한 여름나기 포스터
 3. 폭염대비 건강수칙 리플릿
 4. 온열질환 예방 카드뉴스

담당 부서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책임자	과 장	안윤진 (043-719-7780)
		담당자	사무관	안대식 (043-719-7798)
			주무관	정성호 (043-219-2978)

□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개요

- (참여기관)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기관, 관할 보건소, 시·도
- (신고체계) 참여의료기관→관할 보건소→관할 시·도→질병관리청
 - * 질병관리청 운영 전산시스템 '질병보건통합시스템'으로 신고·보고
- 운영결과(2011~2025년)

<환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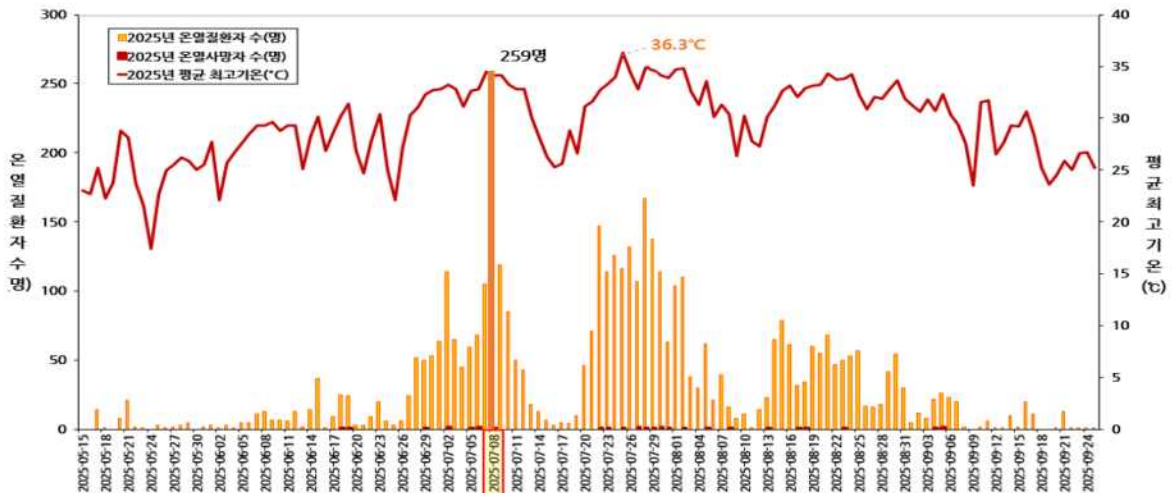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운영 기간	7.1~9.3	6.1~9.6	6.2~9.7	6.1~9.6	5.24~9.5	5.23~9.21	5.29~9.8	5.20~9.10	5.20~9.20	5.20~9.13	5.20~9.30	5.20~9.30	5.20~9.30	5.20~9.30	5.15~9.25
참여 기관	491개	459개	437개	541개	539개	529개	527개	521개	508개	503개	494개	497개	504개	507개	517개
환자 (사망)	443 (6)	984 (15)	1,189 (14)	556 (1)	1,056 (11)	2,125 (17)	1,574 (11)	4,526 (48)	1,841 (11)	1,078 (9)	1,376 (20)	1,564 (9)	2,818 (32)	3,704 (34)	4,460 (29)

* 참여기관은 감시체계 운영시작일 기준
 ** 환자 수는 추정 사망자 수를 포함

□ 2025년 온열질환자 신고 추이 및 특성

* 2025.5.15. ~ 9.25.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건 기준

- (주) 1. 본 자료는 전국의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참여 통해 응급실 내원환자 현황을 수집하는 감시체계임.
 2. 날짜는 증상발생일 기준이며, 주(week)는 일요일~토요일 기준임.
 3. '온열질환자'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포함한 집계임.
 4. 통계 구성비(%)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함.



<2025년 일일 온열질환 발생 분포와 평균 최고기온>

<주별 신고 현황> * 날짜는 증상 발생시기 기준

주별 증상발생	온열질환자(명)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명)
계	4,460	29
1주(05.15.~05.17.)	14	-
2주(05.18.~05.24.)	33	-
3주(05.25.~05.31.)	16	-
4주(06.01.~06.07.)	29	-
5주(06.08.~06.14.)	62	-
6주(06.15.~06.21.)	102	2
7주(06.22.~06.28.)	120	-
8주(06.29.~07.05.)	450	4
9주(07.06.~07.12.)	729	3
10주(07.13.~07.19.)	60	-
11주(07.20.~07.26.)	752	2
12주(07.27.~08.02.)	803	8
13주(08.03.~08.09.)	214	2
14주(08.10.~08.16.)	254	1
15주(08.17.~08.23.)	346	4
16주(08.24.~08.30.)	257	-
17주(08.31.~09.06.)	126	3
18주(09.07.~09.13.)	32	-
19주(09.14.~09.20.)	44	-
20주(09.21.~09.25.)	17	-

<성별>

구분	계	남자	여자
온열질환자(명)	4,460	3,553	907
구성비(%)	100	79.7	20.3

<연령별>

구분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65+
온열질환자(명)	4,460	9	132	445	608	603	865	834	485	479	1,341
구성비(%)	100	0.2	3.0	10.0	13.6	13.5	19.4	18.7	10.9	10.7	30.0

<질환별>

구분	계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기타
온열질환자(명)	4,460	667	2,767	613	345	3	65
구성비(%)	100	15.0	62.0	13.7	7.7	0.1	1.5

<발생시간별>

구분	계	0-6	6-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4
온열질환자(명)	4,460	88	521	361	382	409	387	438	481	436	323	258	376
구성비(%)	100	2.0	11.7	8.1	8.5	9.2	8.7	9.8	10.8	9.8	7.2	5.8	8.4

<발생장소별>

구분	계	실외									실내					
		계	작업장	운동장(공원)	논/밭	산	강가, 해변	길가	주거지 주변	기타	계	집	건물	작업장	비닐 하우스	기타
온열질환자(명)	4,460	3,534	1,431	237	542	119	52	522	186	445	926	237	137	359	53	140
구성비(%)	100	79.2	32.1	5.3	12.2	2.7	1.2	11.7	4.2	10	20.8	5.3	3.0	8.0	1.2	3.1

<발생지역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온열질환자(명)	4,460	378	171	140	280	72	52	188	33	978	172	215	227	248	381	436	382	107
구성비(%)	100	8.5	3.8	3.1	6.3	1.6	1.2	4.2	0.7	21.9	3.9	4.8	5.1	5.6	8.5	9.8	8.6	2.4





이렇게 준비하세요!

건강한 여름나기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 샤워 자주하기
-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모자 등)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항상 시원하게!



물은 자주 마시고!



휴식은 충분하게!



매일 기온 확인하기!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www.kdca.go.kr

이렇게 준비하세요!

폭염대비 건강수칙





질병관리청
KDCA

온열질환 응급조치

주요증상

- ☀️ 고열
- ☀️ 축축하고 땀이 많이 나거나,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 빠른 맥박과 호흡
- ☀️ 두통
- ☀️ 피로감과 근육경련

↓ 있음

의식유무	없음	119 구급대 요청
시원한 장소로 이동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탈거하거나 물을 시원하게 함		옷을 탈거하거나 물을 시원하게 함
수분 섭취		병원으로 후송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고령자 및 독거노인



아외 근로자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병, 당뇨, 뇌졸중 등)



어린이

폭염대비 건강수칙

작은 실천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기온, 폭염특보 등을 매일 확인하세요!



- 1 시원하게 지내기

 - ☀️ 샤워 자주 하기
 - ☀️ 헝겊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 2 물 자주 마시기

 -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3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 *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8 -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1/6

여름철 폭염일수 증가

매년 온열질환자 지속발생

2/6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주당 사망은 대부분 열사병

3/6

폭염시 야외작업 자제!

▶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6~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45.4% 발생 48.7%는 낮 시간에 발생!

4/6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 2025년 본말일관 청금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수

5/6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 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6/6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 구급대 요청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p>▶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p>	<p>▶ 병원으로 후송</p>

※ 의식이 없을 때 응급을 미루게 하면 입사확률이 낮으니 주의 필요

7/6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 시원하게 지내기**
 - 시원한 장소 자주 찾기
 - 오후 5시 이전 차단재(햇선, 모자)
 - 햇선하고 뵈면 세침의 7배는 못 입기
- 물 자주 마시기**
 - 갑증될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 신경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 건강상태를 살펴봐 합병증도 주의하기

8/6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9/6